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7

1997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열왕기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7

1997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열왕기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2.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도록
3. 김창인 목사님과 김성관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7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열왕기하 서론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우상숭배와 부도덕과 불일치로 인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에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에서 시작된 몰락은 앗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패망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이라는 이중적인 비극의 종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136년간 더 존속함으로써 선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스무 왕 중에서 여덟 왕은 비교적 선정을 했던 선한 왕으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송아지 숭배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다는 이 왕들의 시기에 여호와 신앙을 되찾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1-17장은 분열왕국의 역사를, 18-25장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이며, 남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입니다.

- 본문의 구조 -

1. 엘리야(1:1-2:11)
2. 엘리사(2:12-13:25)
3. 이스라엘의 멸망(14-17장)
4. 히스기야와 이사야(18-20장)
5. 느부갓세르의 악정과 요시야의 개혁(21-23장)
6. 유다의 멸망(24장)

1

(화) 예후의 혁명

찬송 / 168장 본문 / 왕하 9:11-29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 (9:24)

오랫 악행을 자행했던 아합의 가문에도 드디어 예후가 일으킨 혁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정하신 혁명이었습니다. 아합이 우상의 죄수가 되고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던 당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불러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왕상 19:16) 고 이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움으로써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당시의 이스라엘 왕인 요람에게 반기를 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후가 일으킨 혁명은 아합의 가문인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는 때가 찬 혁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명했던 것이 40여년이 지난 후에 엘리사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오므리 왕조의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왕위를 이은 아들들은 조금도 뉘우치는 일이 없이 악행을 자행하였기에 예후의 혁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고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거울 삼아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각별히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죄악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않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9:33)

이 세벨은 남편인 아합 왕은 물론 오므리 왕조 전체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장본인이었기에 그 말로가 비참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끝까지 악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자 자기도 곧 죽게 될 운명인 것을 알고 죽을 준비를 하고는 예후를 향하여 반역자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죽을 각오를 했지만 끝까지 악심을 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둘째, 자기 내시들 손에 던져졌습니다. 예후의 말을 들은 내시들이 이세벨을 붙들어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니 땅에 떨어져 박살난 그녀의 몸에서 피가 터져 담장에까지 튀었습니다(33절). 참으로 끔찍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시체는 개들에게 먹혔습니다. 이세벨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 박살나자 예후는 그 시체를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시체에 대한 최대의 모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시체를 장사하려고 찾아가 보니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는 남아 있지 않고 개들이 달려들어 그 시체를 거의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은 전무후무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남달리 악행을 자행하였기에 그녀의 죽음 역시 남달리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이같은 비참한 죽음은 각별히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게 하소서. ② 김창인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3

(목) 직계들을 다 죽인 이유

찬송 / 377장 본문 / 왕하 10:1-17

2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 4(10:11)

예 후는 자기가 일으킨 혁명이 일단 성공을 거두자, 이번엔 아합 왕의 직계들을 모조리 진멸시키는 후속 조치를 벌였습니다.

첫째, 죄의 근본을 뿌리뽑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의 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부모들의 죄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의 죄가 뿌리를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것도 다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온갖 죄악들의 근본을 제거하고 그 뿌리들을 죄다 뽑아 버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본과 뿌리들이 기회를 타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주님께 자백함과 더불어 깊이 뉘우침으로 죄의 근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시켰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존엄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녕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한 것은 모든 것을 바쳐 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일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은 우리도 예후의 정신을 본받아서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죄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목사님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10:28)

예후가 자기 일에 열성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의 혁명은 폭력과 피 흘림으로 치우쳤고 여호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예후는 타인의 죄를 진멸시켰으면서도 자신은 바알의 숭배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후를 통하여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24).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한 데 모아 놓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하였습니다. 예후가 한 행동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 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도 그가 한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29, 31).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몰살한 후 자신은 뱀열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후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칭찬과 아울러 책망을 하셨습니다(30). 하나님을 섬기며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예후의 집안이 계속적인 복을 받지 못한 원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만 악을 제거하는 일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힘있게 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5

(토) 욕심의 결과

찬송 / 213장 본문 / 왕하 11:1-21

『...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으더라.』(11:20)

아하시야가 므깃도에서 죽은 것을 알고 그의 모친 아달라는 왕가의 씨를 진멸하여 왕권을 잡은 후 우상 숭배를 합법화하고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아달라는 권세욕과 우상 숭배의 사악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 것은 첫째, 권세욕은 무자비한 결과를 가져옵니다(1). 아달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로서 부모의 혈통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권세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중에서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아달라는 자신이 왕위에 올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왕의 씨를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친척들이었지만 자신의 위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일가 친척 중 왕자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습니다.

둘째, 욕심은 그 끝이 죽음입니다. 아달라는 왕자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였지만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는 왕자들 가운데서 요아스를 죽는 자리에서 건져내어 숨겨놓았습니다. 요아스는 한 살밖에 안된 나이였고 여호와와의 전에 6년동안이나 유모가 함께 있어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여호와와의 전에 불러들이고 왕자 요아스를 알리고 왕위에 세웠습니다. 아달라는 분노하였지만 이미 그의 때는 끝이 났고 그도 마침내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아달라를 볼 때 권세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자신마저 해치는 욕심을 피해야 합니다.

▶ 기도제목 / 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찬송 / 307장 본문 / 왕하 12:1-21

*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 저를 죽였고 (12:20)

일 곱 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였고 종교 개혁도 실시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도 계속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훈받을 것은 첫째, 요아스의 종교개혁은 훌륭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를 명하였으나 일이 진행되지 않자 연보কে를 만들어 자금을 모은 후 실제 일하는 자에게 지급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9-15). 요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렸을 때 그의 말년은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아람 왕 하사엘이 침공하자 그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하사엘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아스는 신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통하여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들의 앞 길도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 갑시다.

▶ 기도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한 생활을 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③ 때를 따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헌신된 삶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발하사 …』(13:3)

예 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교훈받을 것은 첫째,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올라 악을 행하였고 백성들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백성들도 함께 최악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외적의 침입을 받아 확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스라엘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결국 아람 왕의 손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인생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전날의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 기도제목 / ① 전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위원(예배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③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 (13:23)

보 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이 땅 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루었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며 애통해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국제적인 상황을 볼 때에 탁월한 영적인 권위를 가졌던 엘리사의 힘이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한 엘리사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여서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15-19절).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제까지 악행을 일삼던 요아스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아람 사람들을 징계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22절 이하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아스가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셨던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엘리사의 열심과,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 (14:3)

본 문에는 아마샤 왕의 통치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는 모습과 함께 잘못된 모습까지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3절). 물론 다윗과 비교해 볼 때에 만족할 수준은 되지 못하였지만 말입니다. 또 그는 부친 요아스가 이루었던 신앙개혁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정작 우상을 섬기는 산당은 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유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을 보면, 그는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유다 왕국을 굳게 세우고, 자신이 아버지인 요아스 왕을 살해하였던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아버지의 죄로 자식들까지 죽였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율법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서 유다왕국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아마샤는 오랫동안 유다를 괴롭히던 에돔 족속을 군사적으로 정벌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 고무되어진 그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까지 침략하였다가 그만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였던 아마샤는 일시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한 자리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진 그 성공의 모습까지도 다 잃어 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고, 아울러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14:27)

본 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오므리 왕과 아합 왕 다음으로 강력 한 국력을 과시하였던 시기의 국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본문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경을 다시 회복하는 쾌거(25절)를 이루었으며, 무려 41년 동안이나 많은 이방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도 든든히 나라를 지켰습니다(23, 28절).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와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이것이 결코 그들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에 따른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생명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죄로 인해 징계하시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꾸준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면서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아사라가 …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15:3, 4)

본 문에는 유다 왕 아사라의 사적과 이스라엘 왕 요담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되는 유대 왕 아사라는 ‘웃시야’라는 이름으로 역대기(歷代記)에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또 훌륭한 건축 사업을 일으켰으며, 많은 백성들의 칭송과 기대를 한 몸에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대하 26장).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유대 땅에 있는 산당들을 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산당은 이방인들의 그릇된 종교적 관행에 따른 우상숭배의 거점으로 여기고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의 산당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민 33:52),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유일하게 히스기야 왕만이 열심을 내어 산당을 제하여 버렸지만, 그 후대의 왕들이 다시금 산당을 세우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곳이 예배의 처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삼상 9, 왕상 3).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이방신의 산당이 세워진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엄중한 비판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장소의 화려함이나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것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영육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요 4:20-24).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5:18, 24)

본 문에는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가 한 달만에 므나헴에게 죽임을 당한 살룸이며, 둘째는 군대를 일으켜 살룸을 제거하고 1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므나헴이며 셋째는 므나헴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2년간 통치하다가 베가에게 죽임을 당한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15년 정도 앞두고 이미 피에 피를 부르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피의 역사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뿔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마저 임의대로 바꾸었으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왕이 스스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왕들도 역시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로보암의 정책과 죄악을 그대로 따르게 되었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다른 사람들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 호세아가 반역하여 ...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15:30)

이 스라엘은 또 다시 베가에 의해 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베가는 므나헴의 아들인 브가히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가는 므나헴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 그와 함께 10년간, 그리고 그 아들인 브가히야와 함께 2년 동안 제2인자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가는 2인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회를 노리다가 어린 브가히야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가가 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므나헴과 브가히야와 함께 통치한 12년간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실제로 그가 단독으로 통치한 시기는 약 7년 정도였습니다. 베가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빌레셀은 앗수르의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으로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온 갈릴리와 남달리 지역(북부지역)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갈릴리 포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주전 734년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이때에 또 다시 호세아라는 자가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 베가를 죽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심판의 칼을 예리하게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패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16:2)

이 때에 남쪽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16년을 통치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좇지 않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산 위와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반 앗수르 동맹을 맺었으며 유다가 이에 동참하지 아니하자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 말을 거절하고 앗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앗수르는 즉각 출병하여 아람을 치고 그 왕을 죽였습니다. 앗수르를 통해 구원을 받은 아하스는 앗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모양을 그려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은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었으며, 아하스는 그 제단에 모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제단은 자신이 하나님께 물을 때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마음대로 바꾼 아하스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 유다는 형제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을 앗수르에게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소멸시키시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일은 …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17:7)

아 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는 지 12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9년을 통치하였으며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의 등불은 영원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앗수르가 쳐 들어왔을 때에 조공을 드려서 돌려 보냈으나, 그 후에 다시 애굽과 손을 잡고 앗수르를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주전 721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규례를 따랐으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읍과 산 위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으며 우상에게 분향을 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율례를 지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벨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아세라와 바알과 일월성신을 섬겼으며,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술을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 주는 말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17:40)

남 쪽 유다에 비해 신앙의 타락이 더 극심했던 북쪽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앗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결코 쉽게 정복당할 수 없는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옹성 같던 사마리아 성도 앗수르의 3년간의 포위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견고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앗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한 후 혼혈정책을 폈습니다. 앗수르 왕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지역의 타 민족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동시에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의 순수성이 깨어지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에 의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멸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이와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순수성에 대해서 옹호하는 소수의 주장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수치스런 결과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깨끗하게 살며 순종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18:5)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전의 어떤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신앙심이 투철하여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5절 반절)라고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습니다(3절). 또한 그는 우상을 타파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까지도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메달았던 놋뱀에 분향하였는데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4절).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였습니다(6절). 참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선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 21절에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왕은 북쪽 호세아 왕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북쪽은 멸망의 구렁으로 빠져가고 있을 무렵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의 선정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가 신앙적으로 투철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의 가정, 교회,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복을 주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건강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 (18:36)

본 문에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민족이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건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 왕 산헤립은 유다도 침략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유다의 여러 견고한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하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지만 앗수르 왕은 다시금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앗수르 왕은 그의 장관 랍사게를 시켜 유다인들의 신앙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인들의 신앙을 조롱하였습니다. 유다인들의 신앙심이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한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지도에 따르지 못하도록 말로 방해공작을 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여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침략의 근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5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망발입니다.

원수의 공작은 이러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신앙을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수의 책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인들은 원수들의 말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취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와 전에 ... (19:1)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몰려있을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또한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종종 외세에 의해 압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아뢰기보다는 인간적인 힘에 먼저 호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앗수르 왕은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그가 받은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우리는 35절 이하에서 통쾌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19:35)

이 땅의 역사 위에는 영웅으로 자처하는 많은 자들이 나타났다가 속절없이 사라져 갔습니다. 앗수르 왕 산헤립의 경우도 비슷하였습니다. 그가 생존시에는 많은 열국을 지배했었지만, 그의 말로는 하나의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히스기야의 기도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모든 역사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열국을 정복한 것은 여호와와 특별한 목적으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26절). 앗수르 왕 산헤립은 자신의 정복을 스스로 자랑했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결국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군사 십팔만 오천을 쳐서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권이 세상의 군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구원은 남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회개치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항상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소수의 정예부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소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 심히 통곡하더라’(20:3)

후 손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을 선포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에는 회복에 대한 징표로 일영표 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인간적 연약함을 극복하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서는 열정적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째, 간절히 구하면 여호와와의 응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낮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선고를 받고 히스기야는 매우 급하게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여호와와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3절)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바르게 산다면, 죽음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진실히 행하여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② 안식월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히스기야가 …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 군기고와 … 보였는데 …”(20:13)

전 력이 적에게 노출되거나 기밀이 새어 나가면 적은 그보다 더 능한 전력을 갖추기 때문에 패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문병차 보냈던 사신들에게 왕궁과 무기고까지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은 문병차 사신들을 유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앗수르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의 의도는 히스기야 왕과 군사동맹을 맺고 앗수르를 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히스기야는 보물창고와 왕의 재물을 넣어두는 창고와 무기고까지 보여 주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한 것입니다.

둘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런 자랑은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오만으로 매를 자청하고 말았습니다. 즉 바벨론 사신들의 보고를 받은 바벨론 왕은 최초의 계획을 변경해 유다를 먼저 치고 그후에 앗수르를 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뽐내는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 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인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21:6)

하 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석상 그리고 산당을 훼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훼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다시 우상을 부활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패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잘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게 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부친이 척결했던 우상, 곧 바알과 아세라 상 숭배를 부활시켜 성전까지 우상의 전당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기는 자연 숭배까지 끌어들이어 유다를 어지럽혔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잔인한 행위까지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우상숭배였던 것입니다. 둘째, 점치며 사술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전래적인 우상들뿐 아니라 점치는 자, 사술자, 신접한 자, 박수 등을 섬기면서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온갖 잡신들까지 끌어들이어 백성들 사이에서 난장판을 벌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샤머니즘을 민간신앙이란 말로 미화시키고 있으나 그것은 사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죄가 없는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므낫세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패역한 자였습니다. 그는 무죄한 자를 무수히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악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의 패역을 거울삼아 악을 경계하고 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21:20)

본문을 통하여 아몬의 죄악과 그 결국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부친 므낫세가 행한 길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부친 므낫세의 우상숭배와 악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금도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몬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몬의 잘못은 그 아버지 므낫세에게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므낫세처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열조의 하나님’이란 대대에 이르도록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대 왕들 중 아하스와 같은 다른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몬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도 행치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아몬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아몬은 마침내 그의 신복들의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몬은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신복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므낫세나 아몬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 비참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른 삶을 살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 (22:8)

본 문은 경건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인해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율법책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하였습니다(8절). 요시야는 그 부친이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하였는데,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였고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생활을 돌이키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들도 율법책의 발견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10, 11절). 사반이 율법책을 왕의 앞에서 읽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던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과 백성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율법책을 삶의 지침서로 삼았습니다(13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책을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하여 전심으로 회개하고 삶의 지침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근거하여 유다에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7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 2(23:3)

여호와 말씀 듣고 크게 회개한 요시야는 곧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생활에 일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깨닫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무지하여 잘못된 우상을 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고쳐 나갔습니다. 왕이 직접 우상의 처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부수고 불살라 없애게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백성들의 몸에 베어 있는 분위기에서 이것은 큰 모험이요 저항을 받을 만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왕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구습의 악행들을 다 버리고 떠나게 했습니다. 셋째, 사사시대 이후 지키지 않고 있던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케 하는 절기로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요시야 왕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요시야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여호야김이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3:37)

요 시야가 죽고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바로에 의해 여호야김으로 이름까지 바뀌어야 했고 바로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에 바칠 조공을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여 그 중의 일부를 자신의 사치스러운 궁전을 건축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렘 22:13, 14 참조). 이 여호야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서 첫째, 아무리 많은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개혁은 참된 성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에 의해 시도된 종교개혁이 당대에는 효과를 보는 듯하였으나 요시야 왕이 죽자 그 아들들에 의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진정한 개혁 역시 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이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잘못된 위정자의 모습을 여호야김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어떤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여 성실히 책무를 다하며,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 ▶ 기도 제목 / ①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치를 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아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 (24:9)

하 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백성들의 수많은 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들을 개혁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23:24) 그들은 여전히 조금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옛날로 돌아가 과거의 우상숭배를 다시 끌어 들이고 옛 습관으로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굳고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결국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없이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죄악의 형벌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아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훼파되고 성전의 집기와 물건들은 모두 빼앗기고 모든 백성과 방백과 용사와 대장장이까지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유다 땅에는 가난하고 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 이래로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처소였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노략과 포위를 당하고 집들이 불타게 되었으며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가는 등 예루살렘의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못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복을 받을 것이나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날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시드기아가 ...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4:19)

여호야긴을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없이 여호야김과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버리지 못한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한 채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급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성에 갇혔고 마침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갈대아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건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끝내 성벽에는 구멍이 뚫리고 왕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왕과 나라에 계속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형성된 세상 풍조를 따랐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만연된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부분만이 견고하고 확실합니다. 왕궁과 성전과 보물과 사람과 나라, 이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찬송 / 337장 본문 / 왕하 25:22-30

☞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25:29)

L 부गत네살은 그달리야를 남은 백성의 방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미스바를 중심으로 하여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며 백성들을 향해 선정을 베풀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악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하며 떠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는 유다 백성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치 않고 죄악과 불의에 빠지면 엄한 징벌을 받게 됨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벌을 주시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만 하면 용서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여호야킨은 삼십 칠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치욕의 옷을 바꾸어 입고 왕 앞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그 긴 세월 후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가련한 포로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회개가 있기만 하면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신명기 30장 1-10절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징계 가운데서라도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연속된 고난의 역사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음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범죄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회개하여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게 하소서. ② 제2교육관이 하루속히 완공되게 하소서.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렘 1:4)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선민 이스라엘의 고통을 슬퍼하고 그들을 사랑하였던 애국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소명을 받았던 시기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개혁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이렇듯 그는 선지자로서 태함받고 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역할 때에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악한 왕들의 통치 기간인 남유다 말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난한 세상에 당신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며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일꾼을 예비하셨다가 준비시키신 이후에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더욱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이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참으로 겸손하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써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예레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어지럽고 각박한 죄악된 세상에서 힘있게 활동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셨다가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아는 겸손함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충현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되게 하소서. ② 7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8월에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룻기

읽을 말씀 / 룻기 1장 15-22절

찬 송 / 494, 492장

◆ 함께 읽기 ◆

룻기는 아름다운 구속 이야기가 담긴 성경입니다. 사사 시대의 암울한 배경을 뒤로 하고 사랑과 헌신과 책임에 대한 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과 헌신으로 마침내 구속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돌아오면 모든 복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룻기에는 모압지방에서 과부가 된 두 여인 나오미와 룻, 그리고 고향 예루살렘에서 구속자 역할을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무른다는 독특한 율법의 규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 룻기의 구조 ◆

1. 베들레헴으로 돌아옴(1:1-22)
2. 보아스와 룻의 첫 대면(2:1-23)
 3. 보아스의 약속(3:1-18)
 4. 보아스와 룻의 결혼(4:1-22)

◆ 룻기 본문 연구 ◆

1. 베들레헴으로 돌아옴(1:1-22)

① 엘리멜렉의 가정은 왜 유다를 떠났으며, 이 일로 인하여 그 집은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1:1-5)?

② 룻은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생의 방향을 바꿀 것을 결심합니다. 16절의 엄숙한 언약에 나타난 룻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1:16-17)?

2. 보아스와 룻의 첫 대면(2:1-23)

① 가난한 나오미와 룻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현재의 자기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룯이 선택한 삶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2:1-7)?

- ② 자기 가족과 자기 백성의 신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룯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을 해주셨습니까(2:12)?

3. 보아스의 약속(3:1-18)

- ① 기업무를 자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룯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업무를 자에 대한 구약의 다음 두 본문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십시오.

A.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레 25:23-28)

B.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신 25:5-10)

4. 보아스와 룯의 결혼(4:1-22)

- ① 보아스가 기업무를 자가 되어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과정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4:1-12)?

-
- ② 룯이 낳은 아들을 보고 그곳의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습니까(4:14-15)?

◆ 함께 나누기 ◆

1.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며 비난함이 없이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철저한 숙명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선한 것만 하나님께 돌리고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을 찾으려는 것보다는 더 건전한 태도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미래가 막막했을 때조차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삶의 실타래가 엉켜 있다고 생각될 때에 그것을 푸는 신앙의 지혜를 나오미와 룯에게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2. 룯의 마음 씀씀이는 늙고 빈궁한 시모에 대한 결단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룯은 어떤 위험도 각오하였고 닥쳐올 추운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지 취급받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룯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들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경영에 따른 '조용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룯은 보여 주었습니다. 이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조용한 기적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제 2 과

사무엘상(1)

읽을 말씀 / 사무엘상 2장 1-11절
찬 송 / 462, 256장

◆ 함께 읽기 ◆

사무엘서는 지파 동맹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다윗 왕국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본서가 열왕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와 죄로 인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고,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원했던 왕인 사울은 하나님의 명으로 기름부음을 받지만 그의 실패는 결국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윗왕조의 시대를 열게 합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사무엘상의 구조 ◆

1. 사무엘의 초기 시절(1:1-7:1)
2. 사무엘과 사울(7:2-15:35)
3. 사울왕과 다윗(16:1-31:13)

◆ 사무엘상 본문 연구 ◆

1. 사무엘의 초기 시절(1:1-7:1)

1)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음(1:1-2:36)

① 아들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던 한나는 여호와와 집에서 어떤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까(1:11)?

②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1:27-28)?

③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에 관한 2장 6-8절을 읽고 그 뜻을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엘리와 두 아들과 부름받은 사무엘(3:1-4:1)

- 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였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으며(2:23-25), 그의 태도는 왜 잘못된 것이었습니까(3:13)?
- ②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권위를 덧입혀 주셨습니까(3:19)?

3) 언약궤(4:2-7:1)

- 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엘리는 무엇에 가장 마음을 쓰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4:13, 18)?
- ②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에게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습니까(5:3, 6, 9, 12)?
- ③ 이스라엘로 옮겨진 언약궤가 벧세메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6:19)?

◆ 함께 나누기 ◆

1.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불량함은 그 시대와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고 있지만, 소리없이 성장하며 나타나고 있는 사무엘의 등장은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삶을 뚫고 비치는 한 줄기 광선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두 아들의 죄를 금하지 않은 엘리 대제사장의 몰락은 오늘날 자식들을 이기적으로 키우는 수많은 가정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등장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언약궤를 가지고도 전쟁에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이유가 아무리 그럴 듯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단에 춤추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거나 자기들의 경내에 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내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같은 언약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과 블레셋의 대적 가운데서도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 3 과

사무엘상(2)

읽을 말씀 / 사무엘상 15장 17-23절

찬 송 / 253, 351장

2. 사무엘과 사울(7:2-15:35)

4) 사사 사무엘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 ①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승리를 얻은 후 그가 세운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7:12)?
- ②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8:10-18)?

5) 왕으로 선택된 사울과 사무엘의 고별사(9:1-12:25)

①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은 용모뿐만 아니라 겹손에 있어서도 빼어났습니다. 이같은 특징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10:20-24; 11:12-13)?

② 사무엘의 고별사는 백성들의 회개와 권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의식하는 사무엘의 입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12:23)?

6) 요나단과 사울의 타락(13:1-15:35)

①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의 진을 뒤흔든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14:16,19,20)?

- ②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무엇을 명하셨습니까(15:22-23)?

◆ 함께 나누기 ◆

1. 엘리 제사장 이후의 새 시대에 사무엘은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중들에게서 흠없는 자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구현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언약에 충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겸허하게 정직히 평가할 수 있다면 복음 안에서의 새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2. 아말렉 전투 후에 사무엘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순종이나 떳떳하지 못한 양심을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어떤 행동으로 적당하게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 없으며,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 4 과
사무엘상(3)

읽을 말씀 / 사무엘상 31장 1-6절
찬 송 / 367, 421장

3. 사울 왕과 다윗(16:1-31:13)

7) 다윗의 믿음(16:1-18:30)

①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선택되어 기름부음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겠습니까(16:6-13)?

② 골리앗 앞에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17:41-49)?

- ③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될 때, 질투와 증오와 살의가 삶의 페이지를 가득 메우는 사울을 보면서 멸망자의 모습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보십시오(18:10-16).

8) 다윗의 방랑생활과 사울을 살려줌(19:1-26:25)

- ① 다윗은 쫓기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민권도 박탈된 채 집도 없이 유리하며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피신하였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22:1-2)?

- ② 하나님은 사울을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24:10; 26:9,16)?

9) 사울의 전의 상실과 죽음(?7:1-31:13)

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는 왜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까(28:6)?

② 엔돌의 신접한 자와 밤을 보낸 뒤 사울은 승산없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세 아들과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자살을 택하는 사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31:3-6)?

◆ 함께 나누기 ◆

1.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마지막 밤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의 결과를 알고자 기를 쓰면서 사울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였지만, 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도리어 신접한 자의 집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없는 인생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십시오.

2.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에게 지대한 애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의 직무를 이행할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슬픔은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은 아무도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가져온 사울의 몰락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MEMO

000000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